



疎風湯이 고혈압과 동맥혈관에 미치는 영향

최석진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疎風湯은 中風 初期의 中腑證에 활용되어 온 처방으로 뇌혈전증 환자의 반신불수·언어장애·의식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와 혈압강하 및 항고지혈증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疏風湯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과 혈압조절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혈관의 긴장성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疏風湯은 본태성 고혈압 흰쥐에 대하여 실험 5일째에 유의성 있는 혈압강하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혈류량은 증가시키고 혈류속도는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2. 疏風湯은 NE로 수축된 혈관에 대하여 이완효과를 나타내었으나, 혈관내피세포가 제거된 경우에 이완효과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3. 疏風湯의 혈관이완효과는 Indomethacin과 Tetraethylammonium chloride의 전처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N_ω-nitro-L-arginine과 Methylene blue의 전처치료 이완효과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4. Ca⁺⁺-free solution에서 疏風湯의 전처치는 NE에 의한 수축과 Ca⁺⁺의 첨가에 따른 수축의 증가를 모두 억제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 疏風湯은 혈압강하효능과 혈관이완효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이완효과는 혈관평활근에 직접 작용하여 NE receptor를 차단하거나, 혈관내피세포에서 nitric oxide의 생성을 통하여 세포외 Ca⁺⁺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혈관을 이완시킬 것으로 사료된다.